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

김동혁*

1. 들어가며

원전을 만나고 싶은 독자에게 번역은 도우미일까 방해꾼일까? 스웬슨(K. Swenson)이 성경 번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인용하는 두 학자의 말이 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¹⁾ 마일스 스미스(M. Smith)는 번역이 창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 번역을 통해 빛을 볼 수 있다니 번역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³⁾ 움베르토 에코(U. Eco)는 번역을 실패의 기술이라고 규정한다.⁴⁾ 이 말은 번역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스미스의 말도 에코의 말도 첫인상과는 반대되는 측면을 담고 있다. 스미스에게는, ‘만약 창문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짓궂게 물을 수도 있겠다. 반면 에코에게는, ‘그렇더라도 여전히 번역은 기술(art) 아닌가요?’라고 반문할 수 있다.⁵⁾ 하긴 그렇다. 실패만 하는 번역도 없고 최초의 의미만을 온전하게 투과시키는 번역도 없다. 번역자는 다만 원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donghyukk@yonsei.ac.kr. 본 논문은 2025년 4월 8일 영락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래 비전공자를 포함하는 청중에게 입말로 전한 원고였기에 초보적인 내용과 구어의 특징이 남아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1) K. 스웬슨, 『가장 오래된 교양』, 김동혁 역 (서울: 사월의책, 2013), 109.

2) KJV 초판 서문에서 M. Smith가 한 말. Ibid., 108에서 재인용.

3) Ibid., 109.

4) Ibid.에서 재인용.

5) Ibid.

문을 바라보고 따라갈 뿐이다. 그러니 완벽한 번역 성서란 존재할 수 없고 성경 번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어도 성경 번역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유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첫째, 원천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점점 깊어진다. 성서 히브리어의 경우 어휘와 구문 수준에서 모두 그렇다. 어휘 수준에서는 소위 ‘하팍스(*hapax*)’ 이기 때문에 뜻을 알기 어려웠던 단어들 중 20세기 이후에 보다 잘 이해하게 된 것들이 있다.⁶⁾ 이것은 1928년에 처음 발견된 우가리트어 자료와 194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간 발굴된 사해 인근의 수많은 문헌 자료,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헌 자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구문의 경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문장 단위 이상의 히브리어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정확해졌다. 구문론이 발전했고, 내러티브의 구조를 분석하는 담화 분석도 정립되었다.⁷⁾ 따라서 문장 단위 이상 히브리어에 관한 오늘날 우리의 이해는 20세기 초에 출간된 게제니우스-카우치-카울리(W. Gesenius, E. Kautzsch, and A. E. Cowley)의 마지막 영문판은 물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나온 월트키와 오코너(B. K. Waltke and M. P. O'Connor)나 주옹-무라오카(P. Joüon and T. Muraoka)의 설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⁸⁾ 둘째, 사본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 덕분이다. 사해에서 발견된 200여 개의 성경 필사본 덕분에 오늘날 히브리어 성서 출간본(edition)들은 이전보다 원문에 가까워졌다고 자부할 수 있다.⁹⁾ 세 번째 이유는 앞의 두 이유의 맞은편에 있다. 지금까지 이유들은

6) 하팍스에 관한 표준적인 논의로서 H. R. (Chaim) Cohen, *Biblical Hapax Legomena in the Light of Akkadian and Ugaritic*, SBLDS 37 (Missoula: Scholars Press, 1978)을 참고하라.

7) 성서 히브리어의 담화 분석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R. D. Bergen, “Discourse Analysis: Biblical Hebrew”, G. Khan, et al., eds.,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 (Leiden: Brill, 2013; 이하 *EHL*), 746-749; 같은 주제에 관한 표준적인 논의로 R. E. Longacr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2nd ed.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참고.

8) W. Gesenius, E. Kautzsch, and A. E. Cowley,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3);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nglish ed. (Oxford: Clarendon, 1910); B. K. Waltke and M. P.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P. 주옹, T. 무라오카, 『주옹-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개정판 (서울: 기혼, 2022);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ish ed., Subsidia Biblica 27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9) 사본학에 관한 교과서적인 논의로, A. A.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을 보라. 사본학의 관점에서 사해 두루마리를 논의한 내용은 이 책의 69-98쪽을 참고하라.

원천 언어와 관련된 것들인데, 세 번째 이유는 수용 언어와 관련된 것이다. 즉 한국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성서를 계속 번역해야 한다. 언어는 언중 간에 합의된 체계이므로 언어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언어의 단면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실감하게 된다. 예컨대, 1900년대 초반에 쓰인 한국어 문헌을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¹⁰⁾ 따져 보면 100년이 아주 긴 세월이 아닌데도 그렇다.¹¹⁾ 최근 이른바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재현하는 배우의 영상이 인기를 끌었는데,¹²⁾ 40대 이상에게는 ‘옛그제’ 같다고 느껴지는 90년대의 실제 말씨를 영상 자료나 음성 자료를 통해 들어 보면 발음, 억양, 어휘 등이 요즘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요컨대, 원천 언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짐과 동시에 수용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12월 10일에 출간된 『새한글』 구약과 신약은 한국어가 모어인 모든 기독교인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 한국어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모든 세계인에게 반가운 선물이다. 한국 교회로서는 개신교의 『표준』(1993) 이후 31년 만에, 가톨릭의 『성경』(2005) 이후 19년 만에 새 번역을 품게 된 것이다. 2021년 『새한글 신약과 시편』이 출간된 후, 또 2024년 말에 『새한글』 완역 성경이 나오면서, 『새한글』의 번역을 논의하고 그 주요 특징을 정리하는 글이 여러 편 나왔다.¹³⁾ 따라서 여기

10) 흥미로운 자료로서 조선일보,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 <https://newslibrary.chosun.com/> (2025.7.31.)을 보라. 「조선일보」에서 구축한 이 말뭉치(corpus)는 해당 신문이 창간된 1920년 3월부터 1999년까지의 지면 26만 1,589면과 기사 295만여 건을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모든 한자에 한글을 병기해 주며, 특히 192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사 약 122만 6,113건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이 현대어 변환 서비스를 마련해 주었다. 이 말뭉치를 통해 최근 100년의 한국어를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다.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김승재, “신간회 창립과정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 검색어 → 기사 클릭 → 현대어 버튼 누르세요”, 「조선일보」, 2020.3.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153.html (2025.7.31.) 참고.

11) 필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필자의 조부모님은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나셨다!

12) “윤가이, 70년대×90년대 서울 사투리 차이!”, <https://youtu.be/SvZG-BascvQ?feature=shared> (2025.7.31.).

13) 신약학자 이두희와 국어학자 민현식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두 글 모두 「성경원문연구」 51호(2022.10.)에 들어 있다.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224-251;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53-384를 보라. 「성경원문연구」 51호에는 장성민, 조재천, 안창선, 이승현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특정 본문이나 세부 주제에 관해 연구한 연구들도 들어 있다(아래 참고문헌을 보라). 또한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2024.12.)과 56호 별책(2025.5.)은 각각 신약과 구약의 여러 책에서 몇 개의 본문을 선택하여 『새한글』을 중심으로 역본 비교를 한 연구들을 담고 있

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한글』의 특징 중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세 가지 측면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도치의 활용, (2) 말의 종류와 청자 표기, (3) 다양한 화계(話階)의 활용이 그것이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2. 『새한글』 구약 번역의 특징(1): 도치의 활용

2.1. 성서 히브리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의 어려움은 다양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서의 세계와 오늘날 한국의 상황 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 간극은 언어뿐만 아니라 장소, 시간, 문화, 세계관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언어적인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겪는 언어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어순의 차이와 관련된다. 이것은 언어 유형론의 지식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다. 전 세계 언어는 주어(S[ubject]), 목적어(O[bject]), 서술어(V[erb])가 문장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기본 어순(basic word order)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⁴⁾ 기본 어순은 SOV, SVO, VSO, VOS, OSV, OVS의 6가지가 가능할 터인데, 이 여섯 경우 중 주어-목적어-서술어(SOV) 순서를 따르는 언어와 주어-서술어-목적어(SVO) 순서를 따르는 언어가 세계 언어의 90퍼센트에 육박한다(각각 45%와 42%).¹⁵⁾ SOV 언어 중 대표적인 것은 한국어이고, SVO 어순은 다수의 유럽 언어에서 볼 수 있는데 신약의 언어인 헬레니즘 그리스어도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가능한 네 어순(VSO, VOS, OSV, OVS) 중에서는 VSO가 세계 언어의 9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¹⁶⁾ VSO에 속

다.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 자료실” 사이트(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 [2025.7.31.])는 박동현, “[구약 간추린 번역 해설] 『새한글』 간추린 번역 해설집: 구약”을 비롯하여 『새한글』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14) ‘verb’는 대개 ‘동사’로 번역되고, ‘서술어’는 영어 단어 ‘verb’보다는 ‘predicate’를 번역할 때 많이 쓴다. 그러나 많은 언어에서 ‘verb’는 동작을 표현하는 품사라기보다는 **서술어로 주로 쓰이는 품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의 형용사는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의 ‘verb’ 범주에 속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10.), 148-159 참조.

15) R. S. Tomlin, *Basic Word Order: Functional Principles*, Routledge Library Editions: Linguistics 13 (London: Routledge, 1986), 22.

16) R. S. Tomlin에 따르면 나머지 어순 중 세계 언어 중 VOS는 약 3퍼센트, OVS는 약 1퍼센트를 차지하고, OSV 어순은 없다. Ibid.

하는 언어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는 성서 히브리어일 것이다.¹⁷⁾ 요컨대 전 세계 언어의 절대 다수는 SOV, SVO, VSO 어순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순서를 다시 둘로 분류할 수 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순서만 따져서 OV 언어와 VO 언어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SVO 언어와 VSO 언어는 모두 VO 언어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언어 유형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OV 언어와 VO 언어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일관되게 보인다.¹⁸⁾

<표 1> OV 언어와 VO 언어의 어순

OV 언어	VO 언어
목적어 - 서술어	서술어 - 목적어
명사구 - 부치사(adposition)	부치사 - 명사구
소유자 - 소유물	소유물 - 소유자
관계절 - 명사구	명사구 - 관계절

위 표는 특정 언어의 문장 내 어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한국어 같은 OV 언어는 어순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명사구 뒤에 부치사(조사)가 오고(예: ‘가을에’, ‘꽃이’), 소유자 뒤에 소유물이 오고(‘우리 집’, ‘집 마당’), 명사구를 꾸며 주는 관계절 뒤에 명사구가 따른다(예: ‘향기가 좋은 꽃’).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어순은 임의적이지 않다. OV 언어의 경우 네 종류의 어순은 의존어(목적어, 명사구, 소유자, 관계절)가 핵어(서술어, 부치사, 소유물, 명사구) 앞에 나온다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즉, OV 언어에서는 핵어가 뒤에 나오고 VO 언어에서는 핵어가 먼저 나온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꾸며 주는 말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이 나오고(‘흐드러지게 피었다’, ‘향기로운 꽃’), 다수의 유럽 언어에서는 꾸밈을 받는 말 뒤에 꾸며 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blossoms gracefully’, ‘une fleur parfumée’).¹⁹⁾ 쉽게 말해서 OV 언어는 중요

17) 다수의 학자는 성서 히브리어가 VSO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SVO 언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꽤 있다. 성서 히브리어의 기본 어순에 관한 논쟁을 개관하려면 A. Moshavi, “Word Order: Biblical Hebrew”, *EHLL*, vol. 3, 991-998, 특히 991-993; 같은 저자의 보다 자세한 논의로 A. Moshavi, *Word Order in the Biblical Hebrew Finite Clause: A Syntactic and Pragmatic Analysis of Preposing*, LSAWS 4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7-17.

18) E. A. Moravcsik, *Introducing Language Typology*, Cambridge Introductions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99.

19) *Ibid.*, 100. 물론 이러한 어순들을 예외 없는 법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언어 속 어순들은 일종의 경향이다. 예를 들어, VO 언어인 영어의 경우 명사구를 꾸며 주는 관계절은 명사구 뒤에 나오는 표준적인 어순을 따르지만(예: a place that is holy), 형용사의 경우 앞에서 명사구를 꾸며 준다(예: a holy place).

한 말(즉, 핵어)이 뒤에 나오니,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 봐야 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이다. 예컨대 다음 한국어 어구를 보라.

정교하게 세공된 금박 장식과 은은한 광택을 자랑하는 화려한 과자 봉지

이 말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순을 따르는데, 꾸며 주는 말들(“정교하게 세공된 ... 화려한”)이 불러일으키는 기대를 마지막에 나오는 핵어(“과자 봉지”)가 깨뜨려 버린다. 이로써 이 어구는 일종의 우스갯소리가 된다. 반면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

A snack bag, ornate with elaborate gold embellishments and a subtle sheen

이 말은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멋진 의미를 전해 주는 말도 아니다. 그저 싱거운 소리가 될 것이다. ‘과자 봉지’를 뜻하는 ‘snack bag’이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만난 반전은 경험할 수 없다.

성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다.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기본 어순이 같지는 않지만(각각 SVO, VSO), 둘 모두 VO 언어이니 핵어가 의존어보다 먼저 나온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말과는 어순이 반대가 된다. 즉, 히브리어는 목적어 앞에 서술어, 명사구 앞에 부치사(즉, 전치사), 소유자 앞에 피소유물, 수식어 앞에 피수식어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말은 그 반대다. 목적어 뒤에 서술어, 명사구 뒤에 부치사(즉, 후치사 또는 조사), 소유자 뒤에 피소유물,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나온다. 이것은 어순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의 진행과도 관련된다. 적어도 문장 내에서는, 생각의 흐름이 성서 히브리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가 반대가 되는 것이다. 마치 주소를 적을 때 영어에서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점 큰 단위로 나아가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큰 단위에서 시작하여 작은 단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영어와 한국어 사용자 각각이 머릿속에서 주소를 확정하는 방향은 반대일 것이다. 한국어 사용자는 ‘좁인’의 방식으로, 영어 사용자는 ‘좁아웃’의 방식으로 주소를 확정할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가 각각 말하고 들을 때도 이와 비슷할 것 같다.

실제 성경의 예를 살펴보자.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이다.

여호수아 1:1²⁰)

BHS wayhî 'aḥrê môt mōšeh 'ebed YHWH

주석 그리고 ...였다 뒤 죽음 모세의 종 야훼의

번역 [때는] 야훼의 종 모세의 죽음 뒤였다.

BHS wayyō'mer YHWH 'el-yāhōšūa' bin-nūn māšārēt mōšeh

주석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들-눈의 사환 모세의

번역 야훼께서 모세의 사환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위 본문에서 볼 수 있듯, 히브리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각 단어의 배열은 히브리어와 우리말에서 거의 반대로 나타난다. 주지하듯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짚어 가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문장 내에서는 성서 히브리어 사용자의 생각과 한국어 사용자의 생각은 그 진행 방향이 정반대다.

2.2. 원문의 어순을 재현하는 도치의 활용

이런 의미에서 『새한글』이 도치를 적극 사용한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새한글』의 문장 구조에 관해서는 민현식이 간략히 다룬 바 있다.²¹⁾ 민현식의 논의를 확장하여 여기서는 성서 히브리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실제로 비교해 보겠다.

잠언 10:26

BHS kaḥōmeš laššinnayim wəke'āšān lā'ēnāyim

주석 같다-식초 에-이 그리고-같다-연기 에-눈

『새한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지,

BHS kēn he'āšēl ləšōlāḥāyw

주석 그와 같다 정관사-게으른 사람은 에게-보낸 사람들-그를

『새한글』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20) 이하 히브리어 본문은 유대(정방형) 문자가 아닌 로마자 음역으로 표기한다. 로마자 음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때문에 주석 및 번역과 비교하기에 편리하다. 음역하는 방식은 *The SBL Handbook of Style*, 2nd ed. (Atlanta: SBL Press, 2014), 56-58을 따랐다.

21)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미”, 368을 보라.

비교:

『개역개정』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새번역』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먼저 보자. 두 역본의 한국어 어순은 확실히 자연스럽다. 한국어에서 ‘A는 B와 같다’라는 형식으로 직유법을 말할 때는 언제나 보조 관념(‘B’)이 서술어가 되어야 하므로, 매끈한 우리말 문장을 구사하려면 ‘이에 식초’와 ‘눈에 연기’가 문장의 뒤쪽에 와야 한다.

반면 원문의 어순은 『개역개정』 및 『새번역』과 확연히 다르다. 원문에서는 ‘이에 식초 같다’와 ‘눈에 연기 같다’가 상반절에 나온다. 이들은 보조 관념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그다음 하반절에 원관념을 구성하는 성분인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들에게’ 같은 말이 나온다. 이 잠언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상상해 보자면,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것 같다. 상반절을 들으면서 ‘이에 식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속으로 묻지 않았을까?

요컨대 잠언 10:26의 번역에 있어 기존의 『개역개정』 및 『새번역』과 『새한글』은 그 특징이 서로 반대쪽을 향한다. 기존의 두 역본은 우리말 문장이 자연스러운 반면 원문의 생각의 진행을 재현하지 못한다. 『새한글』은 자연스러운 어순을 포기한 만큼 원문의 생각의 진행을 재현한다.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를 보낸 사람들한테요!”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도치 구문은 내러티브보다는 운문과 대화체를 번역할 때 특히 많이 활용되었다.²²⁾ 운문인 잠언 25장의 번역에서도 도치 구문을 많이 만날 수 있다. 25:11-12를 보라.²³⁾

잠언 25:11

BHS	<i>tappûhé zāhāb</i>	<i>bəmaskiyyôt</i>	<i>kāsep</i>
주석	사과	금 안에-그림을 새겨 넣은 그릇들	은
『새한글』	그림을 새겨 놓은 은그릇에 담긴 금사과야,		

22) 예컨대, 막 1:8과 시 1:1-2의 도치에 관한 민현식의 논의를 보라. Ibid.

23) 또한 13-14, 18-20, 24-26, 28절에서도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도치 구문을 만날 수 있다.

BHS *dābār* *dābūr* *'al-'opnāyw*
주석 말은 말해진 에-제때
『새한글』 제때에 하는 말은.

비교:

『개역개정』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새번역』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잠언 25:12

BHS *nezem* *zāhāb* *waḥālī-kātem*
주석 고리 금 그리고-장신구-순금
『새한글』 금고리와 순금 장신구야,

BHS *mókīaḥ* *ḥākām* *'al-'ōzen* *šōmā'at*
주석 꾸짖는 사람 지혜로운 에-귀 듣는
『새한글』 잘 듣는 귀에 들리도록 지혜롭게 꾸짖는 사람은.

비교:

『개역개정』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새번역』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또한 널리 알려진 시편 23장의 3절과 6절을 보라.

시편 23:3

『개역개정』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새번역』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새한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

시편 23:6

『개역개정』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만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새번역』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새한글』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와 그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민현식이 관찰했듯 도치 구문은 『새한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²⁴⁾ 도치 구문은 원문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따르지 않기에 읽기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을 때의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새한글』의 도치는 성서 원어를 모르는 독자로 하여금 원문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제 한국어 독자는 상호 보완적인 두 방향의 성경 번역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문의 생각을 따르지만 천천히 읽어야 하는 번역과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따르기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을.

3. 『새한글』 구약 번역의 특징(2): 말의 종류와 청자 표기

3.1. 한국어의 이인칭 대명사 회피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그리스어, 다수의 유럽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이인칭 대명사를 번역하는 것과 관련된다. 한국어에도 이인칭 대명사가 물론 있다. ‘너(희)’, ‘자네(들)’, ‘그대(들)’, ‘당신(들)’ 등은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이인칭 대명사를 손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성서에서 하나님이나 손윗사람이 청자일 때 원문의 이인칭 대명사를 직역할 수는 없다. 영어처럼 손윗사람에게도 이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는 언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 주는 흥미로운 예로, 미국의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의 고백으로 자주 사용되는 성경 본문이 있다. 아래는 NIV 본문과 그것의 한국어 번역이다.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24)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360, 368.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even death separates you and me.” (Rut 1:16b-17, NIV)

“그대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대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그대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그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대가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그대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그대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 1:16하반-17, 『새번역』을 조금 고침)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상대를 향한 충정을 고백하고 다짐하기에 적절한 성경 본문이다. 그런데 한국어로 거행되는 결혼식에서 이 본문의 한국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이 말은 며느리 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기 때문이다. 위 번역문의 ‘그대’, 즉 원문의 이인칭 대명사는 한국어 역본에서 실명사인 ‘어머니’로 번역되었다. 룯의 고백과 다짐을 『새한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가고, **어머니** 묵으시는 곳에서 묵을 테니 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이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게 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난다면요!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룻 1:16하반-17, 『새한글』)

생각해 보면 룯기 1:16하반-17의 성서 히브리어 본문도 결혼식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다. 성서 히브리어는 이인칭 대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룯기 1:16하반-17의 원문을 보면 여자(며느리)가 여자(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미국 결혼식에서 위 본문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에서는 시어머니든 배우자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you’로 부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나 손윗사람을 지칭하는 성서 히브리어의 이인칭 대명사는 한국어에서는 호칭으로 번역해야 한다(예: ‘하나님’, ‘주님’,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임금’ 등).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인칭을 가리키게 되면 이인칭을 가리키는 표현과 삼인칭을 가리키는 표현이 같아지게 된다. 예컨대, 임금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옆집 어른에게 “임금님이 저희 집에 오

셨네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똑같은 말을 지금 우리 집을 방문하시는 임금님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특히 글말에서 “임금님이 저희 집에 오셨네요.”라는 말은 임금에게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 물론 전후 맥락을 보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대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헛갈리는 경우는 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의 경우 자신을 향해 말하는 고백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섞여 있는데(1-3, 6절은 혼잣말, 4-5절은 기도), 100년 전 한국어의 종결 어미에 익숙하지 않은 오늘날의 독자가 『개역개정』을 읽게 되면 어느 부분이 혼잣말이고 어느 부분이 기도인지 알기가 어렵다.

시편 23:1-4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

4절에서 ‘주께서’로 번역된 말과 ‘주의’로 번역된 말은 원문에서 각각 이인칭 단수 대명사 주격과 소유격이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 또한 이인칭 대명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른 많은 언어에서는 — 4절이 기도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4절이 기도임을 알려 주는 표지는 맨 끝의 종결 어미 ‘-나이다’뿐이다. ‘-나이다’는 공손한 표현이므로 이 말이 혼잣말이 아님을 일러 줄 것이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현대 한국인에게 1-3절의 ‘-으리로다’, ‘-는도다’와 4절의 ‘-나이다’는 그저 비슷하게 들린다. 둘 다 예스러운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는 예사말이고 다른 하나는 존댓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3.2. 말의 종류와 청자 표기

한국어의 이런 특징, 즉 손윗사람을 가리킬 때 이인칭 대명사를 회피하는 특징은 성경의 원문에 다가가고자 할 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필자는 아주 오랫동안 시편 23장 중 4-5절이 하나님께 직접 올려 드리는 기도임을 알지 못했다. 어린 시절 교회학교 숙제로 시편 23장을 암송했는데도 그랬다. 4-5절이 기도임을 알게 된 것은, 신대

원에서 히브리어를 배운 후 원문을 읽으면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영어 본문을 정독했다면 알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 그런데 만약 필자가 『새한글』을 읽었다면 4-5절이 기도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새한글』이 원문에 없는 말을 끼워 넣는 과감한 시도를 한 덕분이다. 『새한글』이 시편 23장을 번역한 것을 보라.

시편 23

여호와를 의지하는 노래

1 노랫말(시). 다윗에게 속한 것.

(혼잣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2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쪽 쉼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3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

(기도)

4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 됩니다.

5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 납니다.

(혼잣말)

6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위 번역에서 본문 중간중간에 이탤릭체로 돼 있는 ‘(혼잣말)’과 ‘(기도)’는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소제목처럼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말이다. 그런데 그 덕에 이제 『새한글』로 시편 23장을 읽는 어린이들은 시편 23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고백이고 중간 부분(4-5절)은 기도임을 저절로 알 것 같다.

이렇게 본문의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어떤 종류의 말인지를 명시해 준 또 다른 예로서 시편 20장을 보라.

시편 20

1 찬양 인도자에게 맞춘 노랫말(시). 다윗에게 속한 것.

(임금에게 하는 말)

임금님이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임금님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가 도움의 손길을 거룩한곳(성소)으로부터 임금님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부터 임금님을 떠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호와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소제물)을.

임금님이 바치는 다태우는제물(번제물)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셀라.

...

(혼잣말)

6 이제 나는 알아,

여호와가 여호와께 기름부음받은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을,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도우시는 힘으로.

...

(기도)

9 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우리에게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날에!

1절에 끼워 넣은 ‘(임금에게 하는 말)’이 없었다면 1-3절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기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압존법에 따라 ‘임금님’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법에 더 맞긴 하지만, 실제 기도를 할 때 ‘임금님’을 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도 회중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목사님’ 같은 말을 쓰지 않는가? 『새한글』은 말의 종류와 칭자 — ‘(임금에게 하는 말)’, ‘(혼잣말)’, ‘(기도)’ 등 — 를 명시함으로써 한국어 독자가 시편 기자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즉, 1-5절에서 저자와 독자는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고, 6-8절에서 저자와 독자는 본인의 내면을 바라보고, 9절에서 저자와 독자는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²⁵⁾

25) 원문에 없는 말을 번역 속에 끼워 넣는 것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끼워 넣어진 정보가 원문에 본래 있는 말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목회자 등 성경 읽기를 지도하는 이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새한글』의 “일러두기”가 이 점을 좀 더 명시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4. 『새한글』 구약 번역의 특징(3): 다양한 화계의 활용

『새한글』의 예언서를 처음 펼칠 때 눈에 금세 들어오는 『새한글』의 특징이 있다. 말의 종류나 청자를 표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화자를 표기한 것이다. 이것은 예언서를 읽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이 다중으로 인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²⁶⁾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전할 경우 예언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원문은 ‘코 아마르 아도나이(*kōh 'āmar YHWH*)’, 즉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치로써 예언서 속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구별해 준다.

화자를 표기하는 방식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한글』의 또 다른 장치가 있다. 바로 다양한 화계(話階, honorific speech levels)를 활용한 것이다.²⁷⁾ 이에 관해서는 민현식이 국어학의 관점에서 친절하게 논의한 바 있다.²⁸⁾ 여기서는 성서학적 의의를 하나 짚어 보겠다.

세 권의 긴 예언서(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중 예레미야서가 가장 읽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직접 한 말(또는 직접 쓴 글)과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에 관해 쓴 글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일인칭으로 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삼인칭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자료비평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일인칭으로 말하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직접 말하고 쓴 내용이며 예레미야가 삼인칭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혹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관해서 쓴 것이다.²⁹⁾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두 자료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새한글』은 훑어보기만 해도 둘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두 자료에서 서로 다른 화계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26) 예언서의 다중 인용에 관해서는 김동혁,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에스겔”, 『성경원문연구』 56 별책 (2025.5.), 211-214를 참고하라.

27) ‘화계’는 ‘청자 경어법’이라고도 부른다. ‘화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 김명운, “청자 경어법(Addressee Honorifics)”,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사회언어학 사전』 (서울: 소통, 2012), 209-210을 참고하라.

28) 예컨대,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370-376을 보라.

29) 이 문장은 매우 복잡한 논의를 크게 단순화하여 말한 것이다. 예레미야서의 형성 과정에 관한 논의로서, 예컨대 J. R. Lundbom, “Jeremiah, Book of”, *ABD*, vol. 3, 711-716을 보라.

예레미야 3:6-10

『개역개정』

6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7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 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새번역』

6 요시아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7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 10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새한글』

6 (예언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 임금 때였습니다. (하나님) “너는 보았느냐?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여자는 높은 산과 울창한 나무 아래라면 어디든지 그리로 가서 거기서 놀아났다. 7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이런 온갖 짓을 한 뒤에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을 그 여자의 자매이면서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가 보았다. ... 10 이런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그의 자매 유다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 여호와와의 말씀입니다. — ”

3장에서 『새한글』은 예언자가 백성에게 말할 때 종결 어미를 존대형으로 번역했다(‘말씀하셨습니다’, ‘때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대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였다면 존댓말을 썼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상상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새한글』의 예언서를 읽을 때 인용 밖 서술어가 존대형인 경우는 굳이 괄호 속 화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예언자의 말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레미야 3:6-10은 일인칭 자료에 속한다.

반면 아래에 인용된 예레미야 26장의 일부를 보라.

예레미야 26:1-6

『개역개정』

1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 4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 6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번역』

1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 4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 6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새한글』

1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너는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 있어라. 그리고는 여호와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 4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자. ... 6 그렇게 계속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26장의 인용문 밖의 문장들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무렵이었다’, ‘일어났다’, ‘말씀하셨다’). 이로써 위에 인용된 26장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삼인칭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새한글』에서 다양한 화계를 사용한 것은

국어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성서학적 의미도 지닌다. 즉, 현대의 비평적 성서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새한글』 구약 번역의 세 가지 특징, 곧 도치의 활용, 말의 종류와 칭자 표기, 다양한 화계의 활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선, 도치는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조금 희생시키지만, 원문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길잡이가 된다. 둘째, 『새한글』이 과감하게 번역 속에 말의 종류와 칭자를 밝혀 적은 것은 한국어 독자가 성경의 내용과 문학의 갈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셋째, 다양한 화계를 활용한 것은 국어학적 의미는 물론 성서학적 의미까지 지닌다.

13년의 땀과 눈물, 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어 독자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기존의 『개역한글』, 『공동』, 『표준』,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가톨릭 『성경』(2005) 위에 더해진 새 귀한 선물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 한국어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세계의 모든 독자들에게 성찰과 사유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리라 확신한다.

<주제어>(Keywords)

어순, 도치, 이인칭 대명사, 말의 종류, 화계.

word order, inversion, second person pronoun, speech types, honorific speech levels.

(투고 일자: 202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8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동혁,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에스겔”, 「성경원문연구」 56 별책 (2025.5.), 205-225.
-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10.), 148-159.
- 김명운, “청자 경어법(Addressee Honorifics)”,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사회언어학 사전』, 서울: 소통, 2012, 209-210.
- 김승재, “신간회 창립과정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 검색어→기사 클릭→현대어 버튼 누르세요”, 「조선일보」, 2020.3.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153.html (2025.7.31.).
- 대한성서공회, “새한글 자료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 (2025.7.31.).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55 별책 (2024.12.).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56 별책 (2025.5.).
-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53-384.
- 박동현, “[구약 간추린 번역 해설] 『새한글』 간추린 번역 해설집: 구약”,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wr_id=29 (2025.7.31.).
- 스웬슨, K., 『가장 오래된 교양』, 김동혁 역, 서울: 사월의책, 2013.
- 안창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관한 제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304-326.
- “윤가이, 70년대×90년대 서울 사투리 차이!”, <https://youtu.be/SvZG-BascvQ?feature=shared> (2025.7.31.).
-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24-251.
- 이승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πίστες 번역에 대한 분석과 제언: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327-352.
- 장성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역사적 현재’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52-279.
- 조선일보,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 <https://newslibrary.chosun.com/> (2025.7.31.).
- 주옹, P, 무라오까, T,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개정판, 서울: 기혼, 2022;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ish ed., Subsidia Biblica 27,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10.), 280-303.

- 피셔, A. A.,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 Bergen, R. D., “Discourse Analysis: Biblical Hebrew”, G. Khan et al., eds.,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 Leiden: Brill, 2013, 746-749.
- Cohen, Harold R. (Chaim), *Biblical Hapax Legomena in the Light of Akkadian and Ugaritic*, SBLDS 37, Missoula: Scholars Press, 1978.
- Gesenius, W., Kautzsch, E., and Cowley, A. E.,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3;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nglish ed., Oxford: Clarendon, 1910.
- Longacre, R. 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2nd ed.,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 Lundbom, J. R., “Jeremiah, Book of”, *ABD*, vol. 3, 711-716.
- Moravscik, E. A., *Introducing Language Typology*, Cambridge Introductions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Moshavi, A., “Word Order: Biblical Hebrew”, G. Khan et al., eds.,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3, Leiden: Brill, 2013, 991-998.
- Moshavi, A., *Word Order in the Biblical Hebrew Finite Clause: A Syntactic and Pragmatic Analysis of Preposing*, LSAWS 4,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 The SBL Handbook of Style*, 2nd ed., Atlanta: SBL Press, 2014.
- Tomlin, R. S., *Basic Word Order: Functional Principles*, Routledge Library Editions: Linguistics 13, London: Routledge, 1986.
- Waltke, B. K. and O'Connor, M. P.,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Abstract>

Features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ion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ion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새 한글』). Published in December 2024, this translation is a significant and welcome gift for those who want to read the Bible in Korean, arriving 31 years after the Protestant 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93) and 19 years after the Korean Catholic Bible (2005). The study highlights three features: (1) the use of inversion, (2) the marking of speech types and addressees, and (3) the use of diverse honorific speech levels.

First, the study considers the use of inversion in light of the distinctive word order between Biblical Hebrew and Korean. Biblical Hebrew typically follows a VO (verb-object) structure, whereas Korean follows an OV (object-verb) structure, often resulting in the flow of thought running in opposite directions. Unlike previous Korean translations that primarily adhered to natural Korean word order, the New Korean Translation boldly adopts the word order of the original by employing inversion where possible. While this inverted structure may impede reading fluency, it encourages readers to engage more deliberately with the text, allowing them to deeply experience the original's unique rhythm and thought flow. This feature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poetic and conversational passages.

Second, the Korean language avoids second-person pronouns when addressing someone of higher status, preferring honorific titles such as “God”, “Lord”, “Teacher”, “Mother”, “Father”, and “King”. This linguistic convention can create ambiguity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making it unclear whether a phrase containing terms like ‘God’ or ‘Lord’ is a soliloquy or a prayer (e.g., Psa 23). The New Korean Translation resolves this ambiguity by explicitly inserting markers for speech types and addressees directly into the text (e.g., “(soliloquy)”, “(prayer)”). This innovative approach helps readers clearly grasp the speaker's perspective and the target of their speech, thereby significantly

enhancing comprehension.

Third, the New Korean Translation employs a much broader array of honorific speech levels than earlier versions, a feature with exegetical significance. For instance, in prophetic texts, where God's words and the prophet's words are frequently quoted, the New Korean Translation uses different honorific levels to distinguish them. It renders the prophet's first-person speech in honorific language, while third-person references to the prophet are translated in plain language. In the book of Jeremiah, specifically, this distinction enables readers to easily discern first-person material likely originating with the prophet himself (using honorifics) versus later third-person additions (using plain language), thus supporting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odern critical biblical scholarship.